

양계 사료산업 전망



서 상 훈 박사

(주)카길애그리퓨리나
양계사업부 연구기술 및 마케팅담당 이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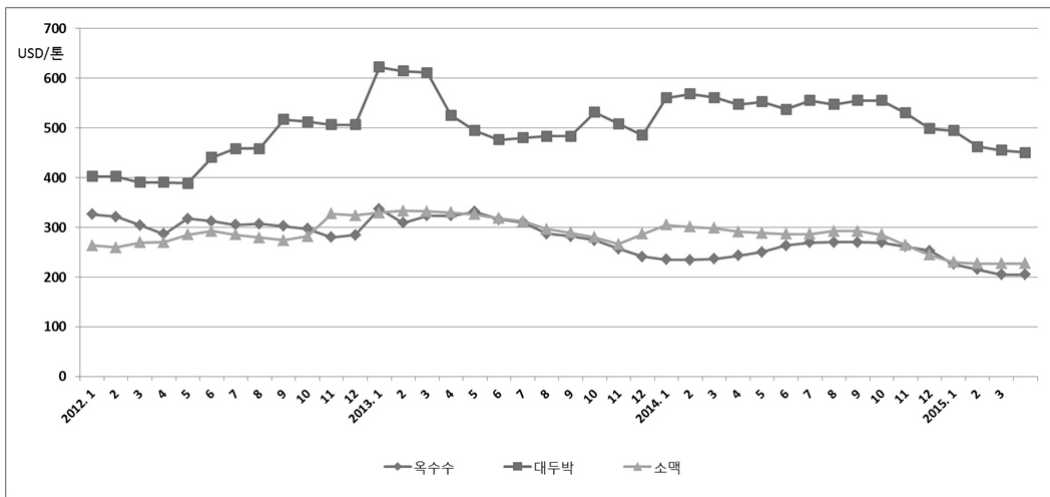
■ 2014년 양계산업을 돌아보며

2014년도 양계산업은 지난 1월 16일 전북 고창에서 발생한 고병원성 가금인플루엔자(HPAI)의 발생이라는 엄청난 폭풍으로 시작 하였다. 이는 또한 전국을 휩쓸며 양계산업 전반에 막대한 피해를 주었으며, 아직도 양계산업에 커다란 위협요소로 남아

있다는 현실과 함께 2014년 한해도 이제 2개월여를 남겨두고 있다.

그나마 연초부터 서서히 시작된 원료곡물의 수급 및 가격이 안정 하향화 되면서 몇 달 남지 않은 연말을 그나마 내년을 기대하며 보낼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하지만 2015년도 양계산업 전망이라는 어려운 과제를 생각하며, 이런 저런 지표들을 살피다 보니 내년에도 어김없이 여러 가



[그림 1] 주요 사료곡물 가격 동향



지의 변수에 의한 불확실성으로 다시금 마음 한 편이 무거워짐을 지을 수가 없다.

2015년도 연초에는 지난해 후반기부터 지속되어온 원료곡물 가격의 지속적인 하락과 안정된 수급상황 그리고 비교적 안정된 환율 추세로 사료가격 안정화에 긍정적인 작용할 것으로 예상되어 진다.

또한 현재 시점에서 꾸준히 강세를 보이는 난가와 장기간 약세를 보이는 계육의 가격도 구조적인 생산잠재력 상황과 시장 상황의 변화에 의해 언제든지 약세와 강세로 전환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양계산물 수익의 불안정한 상황은 양계사료 산업의 불안정한 요인으로 작용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이 현실이다.

먼저 2014년도 양계분야 통계자료를 점검해보고 본격적인 양계배합사료 전망에 대한 점검을 해보고자 한다. 2014년도 9월(3/4분기) 마감 시점을 기준으로, 산란계 사육마리수는 6,526만 3천마리로 전분기 대비 241만 2천마리(3.8%), 전년동기 대비 258만 9천 마리(4.1%) 각각 증가, 육계는 7,584만 6천마리로 전분기 대비 2,774만 7천 마리(-26.8%) 감소, 전년동기 대비 1,134만 1천 마리(17.6%) 감소한 상황이다.

산란계는 지속적인 산지계란가격 호조에 따른 입식증가 및 노계 도태 지연으로 증가 추세를 나타내고 있다.

- 계란 산지가격(특란 10개) : ('13. 8) 1,322 → ('14. 3) 1,337 → ('14. 6) 1,397 → ('14. 8) 1,392원

- 가구 당 마리수 : ('13. 9) 51.5 → ('14. 3) 54.3 → ('14. 6) 56.0 → ('14. 9) 56.5천 마리

육계는 여름철 특수(삼계탕 등)가 끝나는 계절적 요인으로 전 분기 보다 감소, 아시안게임 특수에 대비한 입식증가 등으로 전년보다는 증가로 나타났다.

- 사육가구수 : ('13. 6) 1,972 → ('13. 9) 1,457 → ('14. 6) 2,035 → ('14. 9) 1,578가구

오리 사육 마리수는 819만 7천마리로 전 분기 대비 210만 8천마리(34.5%) 증가, 전년 동기대비 404만 9천 마리(-33.1%) 감소한 상황이다. 이는 사육가구의 입식 증가로 전분기 보다 증가, 가금인플루엔자(AI) 발생에 따른 사육가구수 감소 등으로 전년보다는 감소한 것으로 보여진다.

- 사육가구수 : ('13. 6) 979 → ('13. 9) 929 → ('14. 6) 549 → ('14. 9) 693가구

■ 산란계 사육 및 사료생산량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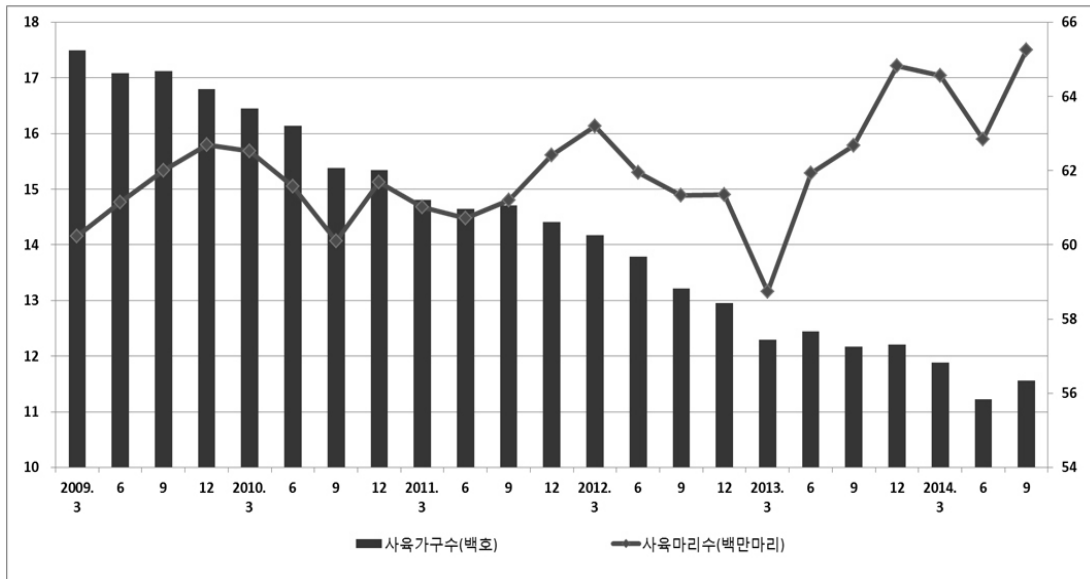
2013년 4/4분기부터 생산원가 이상의 가격대를 회복한 계란값은 여러 가지 상승 호재로 인해 현재까지 장기간의 강세를 이어오고 있으며, 이는 연초까지는 이어갈 것으

<표 1> 산란계 사육 마리수 전망

(단위 : 천수)

구분	3월	6월	9월	12월
2014년 (A)	64,572	62,851	65,263	
2013년 (B)	58,746	61,927	62,674	64,824
증감률 A/B (%)	9.9	1.5	4.1	

자료 : 통계청(농업관측센터 추정치 및 전망치)



자료 : 통계청, 농업관측센터 추정치

[그림 2] 산란계 사육 마릿수 및 가구수 추이

로 추정된다. 그러나 지속적인 입식증가와 노계 도태 지연 등에 따라 상반기 이후 계란값은 그리 밝지 않을 전망이다.

이러한 상황은 2015년 원료곡물 가격의 하향 안정화, 환율 안정화 등의 예상과 맞물린 사료가격 하향 안정화로 인한 계란 생산원가 하락으로 채란농가에 지속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표 1>의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산란계 사육 마릿수는 3월 대비해서 소폭 증가세가 진행되고 있으며, 9월 65,263만 마리로 전년 대비해서는 그 격차가 4.1%로 증가하는 수준을 보여주고 있다.

<그림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최근 몇 년 동안 산란계 사육농가수는 많이 감소한 반면, 계사 현대화 사업 및 지속적인 계란가



<표 2> 산란계 육추사료 생산 현황

(단위 : 톤)

연도	1	2	3	4	5	6	7	8	9	10	11	12	합계
2014	31,845	30,664	29,612	30,752	32,725	31,682	33,573	32,811	34,176				287,840
2013	30,639	30,299	27,139	26,442	27,089	31,050	32,758	30,508	29,951	34,011	32,738	33,849	366,473
2012	34,521	36,353	37,416	33,947	35,718	33,837	31,600	29,906	28,738	28,978	29,410	29,692	390,116

자료 : 농업관측센터

격 상승 기대감 등으로 전체 사육 마릿수는 크게 상승하였음을 알 수 있다.

육추사료는 2013년 전체 생산량이 전년 대비 약 6.5% 감소하였으나, 2014년에는 1월부터 입식이 증가되는 조정을 거쳐 6월까지 2012년 수준과 비슷한 생산량을 기록하고 있었으나, 4~8월에 걸쳐 증가하여 9월에는 34,000톤을 넘어섰다.

따라서 11~12월 계란 생산에 가담할 신계군 증가와 함께 2015년 상반기 까지도 증가 추세가 지속될 전망이다<표 2>.

산란계 사료는 연초 발생한 고병원성 가금인플루엔자(HPAI)의 발생으로 주춤하는 경향을 보였으나 6월 이후부터 전년도 생산량을 넘어서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강세를 보여온 난가의 영향으로 노계도태 지연 및

신계군 생산 가담 상황 등이 맞물려 내년 상반기 까지도 상승 기조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표 3>.

병아리 생산 잠재력은 총 34,718천수로 월평균 289만수 정도로 전년에 비하여 7.6%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2015년도 상반기에도 많은 수수가 생산될 것으로 예상된다<표 4>.

이것은 예년에 비해 산란계 수수가 적정 수수보다 많은 상황이 지속될 것을 전망하는 것으로 예상되어 농가의 자율적인 사육 수수 조절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따라서 내년 상반기까지 산란계 배합사료 생산량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내년 상반기까지 안정 하향세를 보여주는 원료곡물 가격으로 인해 농장의 사

<표 3> 산란계사료 생산 현황

(단위 : 톤)

연도	1	2	3	4	5	6	7	8	9	10	11	12	합계
2014	185,577	160,556	170,482	171,637	170,143	158,196	166,436	168,479	168,815				1,520,321
2013	175,090	148,768	160,810	173,506	173,821	146,785	160,819	156,813	162,993	172,177	170,244	181,582	1,983,408
2012	169,199	154,871	169,210	164,478	166,567	157,585	152,853	154,171	161,852	165,674	163,412	176,139	1,956,011

자료 : 농업관측센터

<표 4> 산란계 병아리 생산 잠재력

(단위 : 천수)

연도	1	2	3	4	5	6	7	8	9	10	11	12	합계
2015	3,563	3,593	3,656										10,812
2014	2,918	3,109	3,081	3,216	2,864	2,725	2,816	2,877	2,796	2,740	2,770	2,806	34,718
2013	3,266	3,092	2,870	3,026	3,354	3,498	3,326	2,990	2,991	3,298	2,997	2,881	37,589
2012	3,160	3,549	3,510	3,482	3,598	3,765	4,003	4,067	3,793	3,200	3,042	3,218	42,387

자료 : 농업관측센터

료 원가 부담은 지속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예상된다.

■ 육계 사육 및 사료 생산량 전망

올해는 연초부터 이어져온 좋지 않은 사회적인 상황으로 소비둔화와 지난해부터 지속되어진 저가 축산물 상황이 육계시세에도 하반기까지 그대로 반영되었다. 이러한 육계시세는 10월 들어 생산원가 이상으로 서서히 회복세를 보이고 있으나 육계사육수수는 평년대비 증가 상황이고 연 평균 도계수수도 전년대비 12% 증가되어 현재의 시세를 유지하기가 쉽지 않을 전망이다.

<표 5>의 대한양계협회 육용종계 입식

동향을 보면, 2013년 대비 5% 감소한 685만수 정도로 예상되어 올해 병아리 과잉공급에 따른 어려움과는 달리 내년도에는 비교적 안정된 병아리 공급이 예상된다.

<표 6>의 농업관측센터 2014년 육용종계 배합사료 생산동향에 따르면, 1~8월까지 2013년 동기 대비 약 6.8% 증가한 206,639톤으로 나타났다.

<표 7>의 농업관측센터 2014년 육계 배합사료 생산동향에 따르면, 1~9월 까지 2013년 동기 대비 14.4% 증가한 1,777,401톤으로 2014년 육계 배합사료 생산량은 역대 최대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어 지난 몇 년간 지속되어온 생산비 이하의 육계가격은 쉽게 회복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된다.

<표 5> 육용종계 입식 동향

(단위 : 수)

연도	1	2	3	4	5	6	7	8	9	10	11	12	합계
전년대비, %	87.3	93.6	73.4	89.2	98.5	105.2	97.8	87.9	126.0	99.3	125.4	139.4	105.2
2014	275,000	360,200	560,200	768,700	631,300	478,900	493,400	681,100	897,800				5,146,600
2013	314,900	385,000	763,600	861,500	640,800	455,100	504,600	774,700	712,600	809,900	617,900	379,200	7,219,800
2012	355,700	671,800	870,200	756,100	586,300	386,800	468,000	559,000	628,700	815,300	492,800	272,000	6,862,700
2011	208,100	430,900	719,900	727,900	679,800	463,050	553,200	726,000	780,100	605,400	511,400	330,000	6,735,750

자료 : 대한양계협회



<표 6> 육용종계 배합사료 생산 동향

(단위 : 톤)

연도	1	2	3	4	5	6	7	8	9	10	11	12	합계
2014	23,265	21,356	23,419	24,758	23,971	21,617	21,450	22,449	24,354				206,639
2013	21,190	19,564	21,479	24,215	23,792	20,604	20,123	20,346	22,173	24,524	23,082	22,788	263,880
2012	21,386	21,510	24,379	24,029	23,358	20,510	19,386	21,045	22,689	22,083	20,132	20,659	261,166

자료 : 농업관측센터

<표 7> 육계 배합사료 생산 동향

(단위 : 톤)

연도	1	2	3	4	5	6	7	8	9	10	11	12	합계
2014	175,252	175,431	173,558	189,607	220,707	238,332	238,156	189,295	177,063				1,777,401
2013	145,784	131,884	161,784	177,679	198,709	215,411	213,597	164,899	144,197	162,598	173,019	186,719	2,076,280
2012	157,292	143,790	162,707	180,825	206,350	228,699	224,464	170,160	145,744	159,219	167,375	170,622	2,117,247

자료 : 농업관측센터

■ 맺음말

양계업계는 2014년 초부터 고병원성 가금인플루엔자(HPAI)라는 복병을 만나 어려운 한 해를 보내고 있는 상황이며, 이러한 상황은 현재도 진행형으로 모든 양계산업 종사자들에게 불안감을 주고 있다.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도 정부와 협회, 계열주체와 종계업체, 사양가, 사료업체가 모두 현명한 대처를 통해, 양계산물의 수요와 공급 안정화를 이끌어 내려고 노력하고 있으나, 지난해 4/4분기부터 지속적으로 이어진 난가 강세와는 달리 육계가격은 장기간 생산비 이하의 가격에서 좀처럼 벗어나질 못하고 있다.

그러나 올해 하반기부터 시작된 원료곡물 하락 및 안정된 환율 상황이 내년 상반기까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어 농장의 사료원가 부담은 지속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산란계 및 육계 모두 사육수수는 이미 적정 규모 이상을 유지하고 있으며, 계란과 닭고기 소비 잠재력에 여유가 있다고 해도, 또 다른 수요 창출이 없는 무리한 입식, 사육과 공급 확대는 미래의 양계분야의 전망을 부정적으로 만들 수 있으므로 양계인 모두의 상호 협력을 통해 시장논리에 부응하는 지혜로운 생산 계획 수립과 실행이 필요할 것이다. ☒